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4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전민영(043-870-5420), 김상걸사무관(5421), 김선화전문관(5426)

국표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 온라인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 MOU 체결 -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현)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4.10(금),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각 업체의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하고
-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 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함
-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임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됨

-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제품안전 협력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 온라인쇼핑몰거래액 : ('11)18조9,910억원 → ('14)28조6,157억원 / 연평균 14.6% 증가

□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는 협약체결을 통하여,

- 온라인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며,
-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상걸사무관(☎ 043-870-5421), 김선화전문관(☎ 043-870-54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위해상품 판정시 해당제품의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과 유통업체를 연계하는 시스템('09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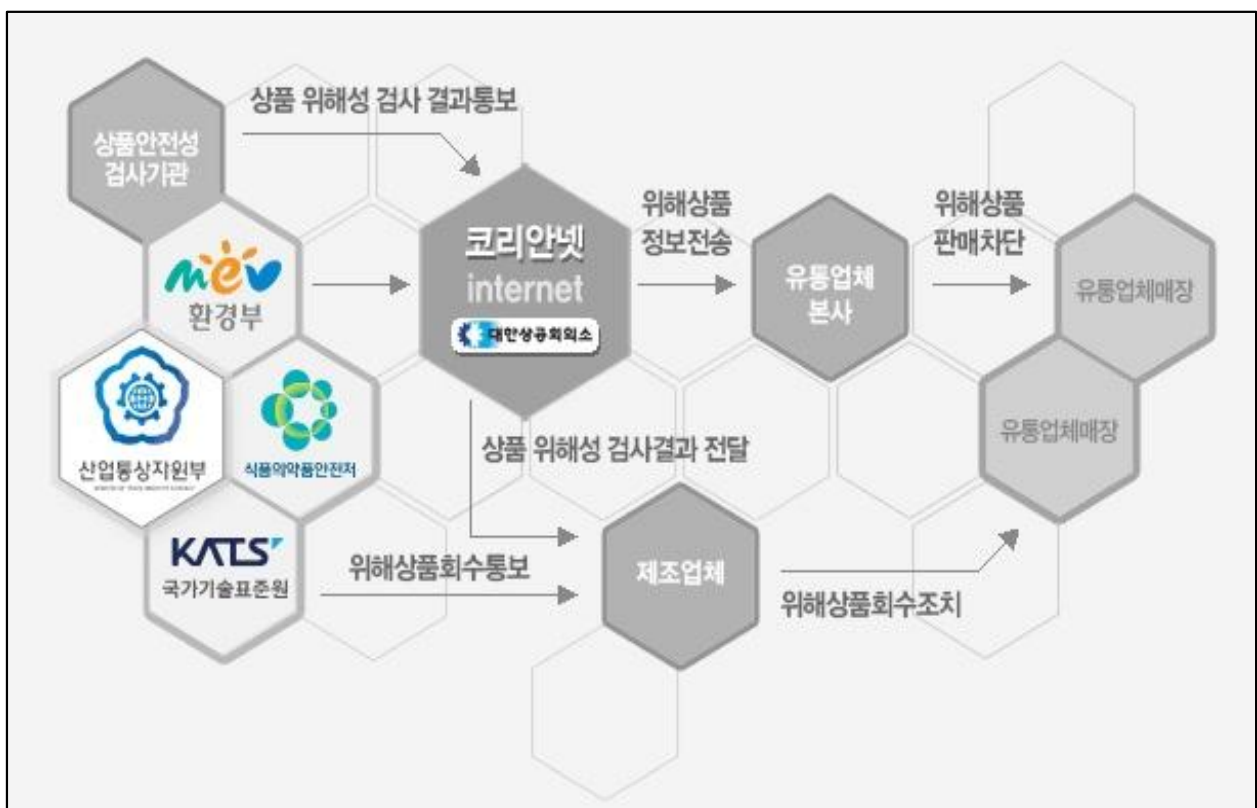
* 국표원(전기용품, 공산물), 환경부(유아용품), 식약처(식품), 농식품부(농산물)

□ 운영방식

- 검사기관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대한상의 운영)에 위해상품정보*를 입력 해당상품의 유통 차단

* 검사기관명, 인증번호, 모델명, 바코드, 제품명, 제조일자, 업체정보(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부적합내용, 사진

- (오프라인) 계산대에서 바코드 스캔 시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
-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상 안내문구 게재 및 결제진행 차단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증마크를 부여



□ 운영현황

-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49개사가 연계 시스템 구축·운영('14.12월)

구분	업체	유통업체
오프라인	대형종합소매업(6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
	백화점(6개)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마산대우백화점, 메가마트,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슈퍼마켓(8개)	GS 리테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메가마트(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
	체인화편의점(8개)	씨유(CU), GS리테일(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음식료품 종합소매업(9개)	나들가게, 중소유통매장,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코레일유통, 판도라로드샵, CJ올리브영, 분스(이마트), 몰리스(이마트)
	음식점(2개)	SPC그룹(파리바게뜨, 크라상, 던킨 등), CJ푸드빌
온라인	쇼핑몰(10개)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 GS홈쇼핑, 이마트몰, 신세계몰, CJ오쇼핑,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YES24